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WORLD ON EITHER SIDE

가제 :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

저자 : Diane Terrana

출판사: Orca Book Publishers

발행일: 2019년 9월 10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매혹적인 음성과 세밀한 것까지 볼 줄 아는 눈으로 고통스러운 슬픔을 날 것 그대로 포착하고 낯선 땅에 선 낯선 사람의 갈 곳 잃은 심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소설” - 주지사 문학상 결승작 『Once, in a Town Called Moth』의 작가 트릴바이 켄트
- * “슬픔과 구원에 관한 암울하면서도 서정적이고, 궁극적으로는 희망이 담긴 이야기가 일인칭 시점으로 실감나게, 그리고 유려하게 흘러간다” - 「커커스 리뷰」

한 달 동안 방 안에서 꼼짝도 않고 나오지 않는 딸이 급기야 약물 과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엄마는 절망의 수렁에 깊이 빠져버린 딸을 끄집어 올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 헤맨다. 얼마 전 불교에 귀의한 엄마가 발견한 것은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서 산을 오르내리며 자연 속에 지내는 것. 발렌타인은 말도 안 되는 엄마의 제안을 극구 반대하지만 의사도, 부모님도, 주변 사람들 모두 발렌타인이 약을 털어 넣은 것이 자살 시도라고 굳게 믿는 이상 더 고집을 피울 수도 없었다. 수면제, 진통제, 그리고 항우울제까지 한 번에 꿀꺽 삼킨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었는지, 죽으려고 작정했는지 사실 발렌타인 자신도 정확하게 가능할 수는 없었다.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남자친구 아미르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후 명확한 판단력 같은 건 잃은 지 오래였다. 결국 엄마 손에 이끌려 비행기를 두 번이나 갈아타며 토론토에서 태국 북부까지 날아간 발렌타인은 세상에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낯설고 새로운 장소에 압도당한다. 그리고 혼자만 느끼고 혼자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던 곱고 터진 마음 속 상처가 그곳에서 만나고, 전해 들은 누군가에게는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음을,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음대로 먹고 자는 일조차 사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한다.

아미르는 하늘과 별, 태양을 사랑하는 장난기 많은 괴짜였다. 시험이나 과제 때문에 쫓기지 않을 때면 늘 아미르와 두 손을 꼭 붙잡고 근처 호숫가로 가서 가만히 누워 별을 바라보던 시간들을 발렌타인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다. 스포츠라면 뭐든 좋아했던 아미르는 축구팀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이기도 했다. 경기가 유독 치열하게 흘러가서 선수들 모두 바짝 예민했던 문제의 그 날,

아미르는 평소에도 사사건건 부딪히던 상대팀 선수 닐 카터와 경기 중에 여러 번 몸싸움을 벌였다. 경기가 끝나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카터는 아미르를 미친듯이 패기 시작했고, 가차 없이 내리친 주먹에 아미르는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아미르가 뛰는 경기는 다 직접 보고 응원했던 발렌타인은 하필 그 날, 경기장에 가지 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경기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광기 어린 주먹에 맞아 숨결이 희미해졌을 아미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지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렇게 작별인사도 할 틈 없이 아미르를 떠나 보내고, 닐 카터가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혐의로 풀려나자 발렌타인은 완전히 무너졌다. 학교도 가지 않고 바로 옆집에 사는 아미르의 부모님도 만나러 가지 않았다. 그저 방안에, 극심한 우울함과 절망, 후회, 분노 속에 스스로를 꼼꼼 묶어버린 채 숨만 쉬고 살았다.

‘충격 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에 엄마가 예약한 치앙마이 트레킹 코스는 산세가 워낙 험준하고 길이 꼬불꼬불해서 현지인 가이드가 반드시 있어야 했다. 린과의 만남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또래로 보이는 린은 쾌활한 성격으로 태국 문화에 영 낯설어하는 발렌타인에게 친근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문화만 생소한 것도 아니었다.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이 맞닿은 산 곳곳을 천천히 걸어서 이동하고 밤이면 침낭 생활을 하면서 그곳을 평생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주민들과 만나는 동안, 발렌타인은 카렌 족과 로힝야 족 사람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생생하게 접한다. 고비 사막에서 살다가 수백 년 전부터 미얀마에 살았지만 2차 대전 이후 무려 70년 가까이 미얀마 정부와 대치 중인 카렌 족 사람들이 수도 없이 군대에 징발되고 태국으로, 다른 나라로 달아나야 했던 일들, 그리고 미얀마 땅에 1,000년 넘게 살고도 정부로부터 국민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로힝야 사람들의 이야기는 발렌타인의 마음을 크게 뒤흔든다. 린과 점점 친해지고 그 씩씩하고 예의 바른 모습 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자 발렌타인이 느끼는 혼란과 부끄러움은 극에 달한다. 코끼리를 사육하고 관광객들을 태우는 일종의 상품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린은 동물들이 최대한 다치지 않도록, 인간의 손에 마음대로 취급되지 않도록 누구보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여행이 이어지는 동안 엄마를 잃은 새끼 코끼리 한 마리가 총을 들고 추격하는 포수 손에 넘어갈 위기가 발생하고 발렌타인은 린을 도와 코끼리를 숨기기 위해 정글 깊숙이 뛰어든다. 린과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부짖는 새끼 코끼리, 그리고 두 발 딛고 설 땅을 얻기 위해 심 없이 싸우는 사람들 속에서 마침내 발렌타인은 그동안 스스로를 묶었던 슬픔이 얼마나 이기적인 일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한다. 헤어나기 힘든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향해 나가는 내적, 외적인 여행기이자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절망하고 다시 희망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유려한 문장으로 아름답게 그려낸 멋진 소설이다.

<저자 소개>

다이앤 테라나(Diane Terrana)는 배우, 댄서, 고등학교 영어 교사, 연극 교사로 일하다 현재 ‘The Rights Factory’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제목 : DEATH PREFERS BLONDES

가제 : 마고의 이중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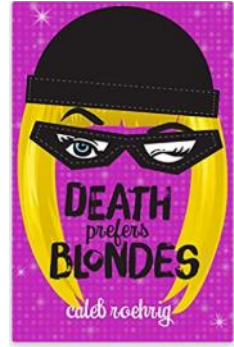
저자 : Caleb Roehrig

출판사: Feiwel & Friends

발행일: 2019년 1월 29일

분량 : 448쪽

장르 : YA 소설



- * 「코스모폴리탄」 선정 ‘올해 꼭 빠지게 될 YA 소설’, 웹사이트 ‘팝슈가(Popsugar)’, 「페이스트 매거진」 선정 ‘2019 최우수 YA 소설’,
- * “오션스 11 급의 강도와 산업스파이, 성적 정체성에 얽힌 갈등을 균형 있게 그려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작가는 침착하고 능숙하게 그 일을 해냈다” - 「북리스트」
- * “대중문화를 참고자료로 멋지게 활용하고 예리한 유머 감각과 정서적인 울림을 모두 선사하는 이야기” - 「엔터테인먼트 위클리」

재벌 집 자제, ‘파티 걸’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미친 마고’라는 이름이 고유명사처럼 굳어진 열일곱 살 마고 매닝은 하루가 멀다 하고 타블로이드 표지를 장식하고 있다. 남의 신변잡기에 관심 많은 기자들과 파파라치들은 매닝 기업 회장 할랜드의 외동딸이 명품으로 온 몸을 휘감고 눈이 턱 풀린 채로 마티니 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나 해변에서 거의 아버지 뺄은 되는 듯한 남자와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을 부지런히 실어 댔다. 하지만 마고에게는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것 없나 호시탐탐 노리는 이들이 알면 웃음기가 싹 사라질 만한 정말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다. 어둠이 찾아오면, 네 명의 팀원을 이끌고 철두철미하게 세워둔 계획에 따라 ‘작전’을 실행하는 지휘관이 된다는 것, 그럴 때 마고의 모습은 신문에 수도 없이 공개된 금발에 명품 차림이 아니라 흰색에 가까운 환한 은빛 가발에 눈을 다 가리는 독특한 디자인의 안경, 그리고 타이트한 전신 트레이닝 복 차림이라는 사실이다. 마고와 네 명의 친구들이 만만치 않은 요란한 차림으로 뛰어드는 그 작전이란 바로 도둑질이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 하나 없는 마고가 부자들이 사는 빌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진귀한 미술품들이 가득한 갤러리까지, 삼엄한 경비를 뚫고 들어가 목표물을 챙겨서 나오는 대담한 행위를 ‘즐기는’ 데다가 뛰어난 실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완벽주의자인 아버지는? 자칫 적발되더라도 하면 유명세 때문에 다른 도둑들보다 수백 배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도 마고가 열다섯 살 때부터 벌써 2년째 도둑질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히 돈 때문이 아니었다. 엄마가 없어도 최고의 팀이었던 아버지와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소원해지고 되돌리고 싶어도 계속 악화되도록 부추기는 세상에 대한 분노인 동시에 다시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을 받고 싶은 어린애 같은 절박함이 담겨 있다는 것도 아마 아무도 모를 것이다.

레이프, 데본, 악셀, 그리고 악셀의 남동생 조아퀸까지 네 명의 ‘강도단’은 입장이 달랐다. 마고에게는 짜릿한 도둑질이 뭘 해도 욕을 먹는 원치 않았던 유명인의 삶과 애정 결핍의 증상이라면 악셀과

조아권 형제는 돈을 반드시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버지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대대적인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된 후 생활비는 물론이고 병든 어머니의 치료비도 직접 벌어야 하는 형편이 된 것이다. 마고와 2년 전에 재미 삼아 고급 빌라를 한 번 털었던 베스트 프렌드 악셀은 그때만 해도 자신이 이런 전문 도둑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절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던 동생까지 한 팀에서 일하는 형제 도둑 신세가 되고 말았다. 레이프도 마찬가지였다. 세계적인 무용수가 꿈이지만 남자가 무슨 춤이냐며 펄쩍 뛰는 부모님은 레이프가 힘들게 입학한 댄스 아카데미 수업료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고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일 저녁 ‘멀쩡해지도록’ 비는 기도를 올리는 부모님 집으로 절대 다시 들어갈 수 없었던 레이프 역시 누구보다 돈일 절박했다. 부모님이 하루 아침에 다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데본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오갈 곳이 없어졌다.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지낼 수 있는 친척집이 있었지만 동성애라면 기겁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리하여 네 명의 동성애자, 일명 ‘드레그 퀸’ 네 명과 양성애자인 마고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팀이 되었다. 일단 돈 드는 일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는 마고 덕분에 좀도둑들은 꿈도 못 꿀 최첨단 장비와 비상한 마고의 아이디어 덕분에 밤이 되면 걸모습과 서로를 부르는 호칭까지 싹 바꾼 다섯 명의 악동들은 스틸 넘치는 ‘취미’이자 생계 활동을 즐겼다. 희한한 차림을 한 정체불명의 도둑들이 혀를 내두를 만한 솜씨로 부자들의 금고며 미술 작품들을 털고 있다는 소식도 매일 떠들썩하게 보도됐다.

하지만 마고에게 생각지도 못한 비극이 덮치면서 신나기까지 했던 도둑질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마고가 다섯 살 때 아내와 이혼한 후 한 번도 재혼하지 않고 회사 일에만 전념하던 아버지가 얼마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렸는데, 결국 갑작스럽게 숨이 끊어진 채로 발견된 것이다. 실력이 좋다는 의사들은 다 만나보고 받아보라는 검사는 싹 다 받아봐도 왜 그토록 활기차던 아버지가 온 몸에 날로 기력이 빠지는지 누구도 알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거대한 회사와 거대한 집, 기밀 곳이라곤 아버지 밖에 없었던 마고만 두고 허망하게 숨을 거둔 것이다. 눈치 빠른 마고는 아버지의 죽음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챈다. 지금까지 도둑질로 연마해온 치밀한 계획과 최첨단 기술, 그리고 의리 넘치는 친구들의 힘을 빌어 마고는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직접 밝혀 내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도둑질 중 한 건이 잠자는 호랑이의 수염을 잡아당긴 꼴이 되어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의 타깃이 되어버린 마고는 태어나 처음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게다가 지금껏 겨우 숨겨온 이중생활이 언론에 새어 나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더 먹칠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마고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간 조용한 살인자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까?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가족과 새롭게 찾은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몽글한 이야기와 함께 옳은 길이라는 확신으로 정당화하는 잘못된 방식이 가져오는 대가와 사회적 정의, 성 소수자라는 묵직한 주제를 흡입력 있게 잘 다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칼럼 로에릭(Caleb Roehrig)은 White Rabbit과 2016년 버즈피드 선정 최우수 YA 소설로 선정된 『Last Seen Leaving』 등을 쓴 작가다. 현재 시카고에서 글을 쓰고 있다.